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3)

獨不知之

독 불 지 지

홀로 이를 모르네오.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즘은 정치권에서는 독재(獨裁)가 유행한다고 말한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일극(一極) 독재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그 말을 믿고서 자기를 편이 되어 주기를 상정한 것이겠지만 그들의 패거리가 아니라면 일반 국민이 그렇게 믿어줄까?

815 해방부터 625, 419, 516, 518, 1212, 413, 629까지 직접 몸으로 겪어 온 필자는 독재가 어떤 것인지 경험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위가 심하였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멋진 말인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413 호헌선언이다. 이때 헌법이란 장중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간첩으로 뽑는 유신 헌법이었었는데, 헌법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때만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미사여구에 속을 국민은 많지 않았다.

대통령의 호헌선언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게 직선제의 수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속한 대학에서도 뜻있는 교수들, 특히 40대의 젊은 교수들이 이제 교수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여 일이 지난 5월 5일은 공휴일이어서 호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자는 교수들이 성명서를 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한편에서는 성명서를 기초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소 대화한 성향을 감안하여 동참을 권유하는 전화를 돌렸다. 독립운동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시기였다.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전화를 동료 교수에게 해 보면 흔쾌히 호헌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핑계를 댔다. 예컨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한 시간 뒤에 전화해 주겠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한 시간 뒤부터 몇 번 전화해 보아도 아예 받지 않았다. 참여를 거절하기 어려워 피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정말 정부의 서슬이 시퍼렸다. 반정부 언론은 여지없이 제재 받았고 교수가 반정부 언론을 한다고 쓰기도 하면 면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반정부성명서에 이름 올리기를 꺼리었으니 비난하기 어려웠다. 이런 시대를 독재 시대라고 명명(命名)해도 된다. 그런데 이 서슬 시퍼런 독재 시대는 629로 끝

났다. 그 후 벌써 근 40년이 지난 지금 검찰 앞에 독재를 붙이거나 또 야당을 일극 체제라고 할 수 있을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 독재 시대는 완전히 갔다. 그런데 상대를 독재라고 하는 것은 '독재는 나쁘다.'는 개념에 기대어 상대에게 독재의 모자를 씌우려는 저열한 잔꾀이니 일을 잘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정상배의 전형이다.

남송 시절에도 권력을 틀어쥔 재상이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기복(起復)이라 모자를 자기에게 씌워 권력을 계속 누리려고 한 일이 있다. 마치 호헌이라는 멋진 모자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일이다. 기복이란 관원(官員)이 부모상을 당하면 사임하고 복상(服喪)해야 하는데, 복상하는 3년 중에 국가의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그가 아니면 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관직을 주는 일이다.

이 좋은 제도를 핑계로 쓰려했던 사람이 남송 이종(理宗)시기의 사송지(史嵩之)이다. 그는 3대에 걸쳐서 독재한 사씨 집안의 마지막 재상이다. 그는 영종(寧宗)이 후사(後嗣)로 정해놓은 조희(? ~1225)이 '등극한 다음에 사송지를 제거하겠다.'고 한 말을 듣고, 황제가 정해놓은 조희 대신 조운(趙昀, 理宗)을 세우고자 준비했다가 영종이 죽자 바로 조운으로 황제에 오르게 하였으니 신하가 황제를 바꾼 것이다.

황제를 바꾼 사송지도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복상(服喪)하려면 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당시에 몽고와 대결 과정에 있으니 이를 핑계로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황제가 자기를 기복시키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생뚱맞게 자기만 기복하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먼저 다른 사람을 기복시켜서 관례(慣例)를 만들어 자기도 기복하려는 꾀를 냈다.

그래서 우선 마광조(馬光祖, 1200~?)라는 사람이 부모가 죽고 졸곡(卒哭)도 하지 않은 사람을 기복시켰고, 같은 방법으로 허간(許堪)을 기복시켰다. 그들은 군수(軍需) 관계를 총괄하거나 군사를 통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업무가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쯤 되면 사송지가 친상(親喪)을 당하고 기복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명분이 된다

고 생각한 것이다. 잔꾀였다. 그런데 정말로 사송지가 친상을 당하였다. 그는 분상(奔喪)도 하지 않고 황제가 자기를 기복시키도록 미리 조치하였고, 이대로 황제 이종은 사송지에게 기복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누 가리고 아웅'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의 속내를 모르고 속을까? 그렇지 않았다.

대학생인 황개백(黃愷伯) 등 1백44 명이 들고 일어나서 황제에게 사송지를 기복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였다. '저 사송지(史嵩之, 1189~1257)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술(心術)은 빼놓아져서 바르지 않고 중직(中職)은 은밀하여 쉽게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독부(督府)를 열어 회의(和議)를 가지고 장사(將士)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넉넉한 물자를 가지고 재상(宰相)의 지위를 훔쳐서 천하의 소인(小人)들을 불러 놓아 사당(私黨)을 만들고, 천하의 이권(利權)을 빼앗아서 개인 집으로 돌리며, 모의(謀議)를 축적한 것이 오래 쌓이고 음험(陰險)한 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조정(朝廷)에 하루를 두면 하루만큼의 화란(禍亂)을 끼치고 조정에 1년 있게 하면 1년만 큰 걱정거리를 끼친다는 것'은 만 명의 입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니 오직 그가 떠나는 것이 빠르지 않을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사송지는 자기에게 적용한 기복이라는 멋진 제도와 논리를 이용하려 했지만 속지 않은 것이다. 백성들도 17자로 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마광조는 총령(總領)을 담당하고, 허간은 절제(節制)가 되었으니, 승상(丞相)이 기복하려고 원례(援例)를 만들었네. '光祖做總領, 許堪爲節制, 丞相要起復, 援例하는 것이다. 황개백은 황제에게 '무릇 마를 골목에 사는 소년(小民)도 오히려 그 간사함을 아는데 폐하만이 홀로 이를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여야는 서로 상대를 독재로 몰고 있지만, 이는 '기복'을 내세운 사송지의 꾀만 도 못한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독제 프레임에 속을까? 오히려 속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닐까?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무리가 있다면 전문 정치꾼, 정상배(政商薈)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에게 민생을 기대하는 내가 순진한 것인가?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고희(古稀)

옛고. 드물 희.

70세 도는 70세에 이른 것을 축하하는 의례, 희수(稀壽)라고도 한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곡강시(曲江詩)에 나오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한 말이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61세에 환갑(還甲), 70세에 고희(古稀), 77세 희수(稀壽), 88세 미수(米壽) 등의 축하연을 열고 장수를 축하하였음.

조선시대에는 고희가 되면 사형집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2품 이상 문관의 경우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고, 고희를 맞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아들 중 하나를 군역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곡학아세(曲學阿世)

굽은 곡. 배울 학. 언덕 아. 인간 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으로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유래 : 중국 한(漢)나라 황제인 경제(景帝)가 즉위하여 천하의 선비를 찾다가 원고생(輟固生)이라는 90세

노시인을 등용하기로 했다. 종신들은 그의 등용을 반대했으나 끝내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같이 등용된 소장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 있었다. 공손홍은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했으나 원고생은 개의치 않고 공손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학문의 정도(正道)가 어지러워져 속설(俗說)이 유행하여 전통적 학문이 결국은 사실(邪說)로 인하여 본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네는 학문을 좋아하고 젊으니 선비로서 올바른 학문(學問)을 세상에 널리 펼쳐주기 바라네. 자신이 믿는 학설(學說)을 굽혀 이 세상 속물(俗物)들에게 아첨(阿諛)하는 것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네." 이 말을 듣고 공손홍은 고매한 학식과 인격을 갖춘 원고생에게 지난 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골육상쟁(骨肉相爭)

뼈골. 고기육. 서로 상. 다툼쟁.

뜻: 가까운 혈족(血族)끼리 서로 싸움.

사람들이 모여 부족이 되고 나라가 되면 우두머리가 생기게 되고 우두머리가 부족 또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정권, 권력을 잡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심조사하고 반란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형제들끼리도 의심하고 다투게 된다.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재산 다툼이 일어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부모한테 잘한 자식에게 상을 주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 비슷한 말로 골육상잔(骨肉相殘), 골육상전(骨肉相戰), 이혈세혈(以血洗血)이 있다.

안동권씨 대구종친회 명사초청 보학강좌

안동권씨 대구종친회(회장 권오섭)에서는 9월 9일 오후 3시 대구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권행만 건국대 겸임교수 (대중회 편집국장)를 초청하여 보학강좌를 실시했다.



권행만 건국대겸임교수, 권오섭 회장(오른쪽)

이날 강좌는 권오섭 회장, 권혁무 전 윤곡서원 운영위원장, 권석조 자문위원, 권혁장 용만 권기 선생 증손, 권정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구동구지회 지회장,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상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오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원래는 8월에 개최하여 방학 중인 후손들에게 안동권씨 후손으로서 우리의 뿌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교육을 하려고 했으나 날씨가 너무 더워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는 현재 약 68,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보다 많은 종친들이 종친회에 나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동권씨 종보 현황을 소개했다. 1974년 12월 1일 창간했으며 족친간의 화목운동이 절실하여 종보를 창간하게 되었다는 창간호 창간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행부수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미국종친회에도 발송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음은 한국 최초의 족보 성화보에 대해 설명했다. 안동권문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족보를 만든 이유는 안동권씨 씨족과 가족의 세계도(世系圖)를 그려 한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유교화의 일환으로 인간이 짐승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풍속과 교화를 이끌기 위한 거대한 인문정신의 발취였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문명의 비전과 포부가 남달랐으며 그것이 성화



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화보는 성화 12년(1476년)에 간행했고 원본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음을 소개했다.

후손이 없는 경우 무후(無後)라고 표시했고, 아들 딸 구별 없이 출생순서대로 기록했으며, 딸의 경우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사위 이름을 기재했다. 또한 외손이 친손(후손)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총 수목인원 9,000여 명 중 외손이 95%, 친손이 5%(450여명) 정도라서 성화보는 여말선초 주요 성씨를 상당수 포괄하는 만성보(萬姓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수건과 빵을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상주 사무국장

<2024년 9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 8.30. ~ 9.26

총 납부자 338명

Table with columns for names and amounts. Total amount: 10,300,000원. Includes names like 권경달, 권경민, 권경진, etc.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